

高僧 다시보기

순도화상과 불교공인

우리 나라 불교의 역사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 전진에서 승려 순도가 불상과 불경을 전하고 그보다 12년 뒤인 침류왕 원년(384) 동진에서 온 고승 마라나타가 백제에 불교를 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불교 초전(初傳)의 내용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통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들 교과서는 불교 전래의 사실만 기술할 뿐, 처음 전래한 사람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구체적인 언급에는 대단히 인색하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소수림왕 편을 보면, "2년(372) 여름 6월에 진나라 왕 부견이 사신과 중순도를 시켜 불상과 경문을 보내오므로, 왕은 사신을 보내어 답례하고 방물을 바쳤다"고 나와 있다. 〈삼국사기〉 통일편도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를 인용해 "또 4년(374)에는 아도가 동진에서 왔다. 이듬해(375) 2월에는 초문사를 지어 순도를 그 곳에 있게 하고, 또 이불란사를 지어 아도를 그 곳에 있게 했는데, 이것이 고구려 불법의 시초다"고 고구려

진나라 왕 사신으로 고구려 입국

소수림왕 5년 초문사서 민중교화

려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장면을 설명하고 있다. 순도스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느 나라를 거쳐서 언제 고구려에 들어왔는지는 〈해동고승전〉 등의 기록을 봐도 모호한 점이 있으나, 중국 본토 사람이 아닌 것만은 확실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이러한 불교초전 기록도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중국의 〈양고승전〉에는 동진의 고승 지문도(314~366)스님이 생전에 고구려의 승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순도스님이 이 땅에 오기 이전에도 한반도에 불교가 들어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남방을 통해서 순도스님보다 매우 앞선 시기에 불교가 들어왔다는 사실들도 전하고 있다. 서기 48년에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인 허왕옥이 배길로 와서 가야의 시조인 수로왕의 왕비가 되었다고 〈삼국사기〉는 전한다. 물론 남방전래설은 이를 그대로 믿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으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만하다.

불교초전과 관련하여 우리는, 순도스님이나 마라나타스님이 북방에서 우리 나라로 들어왔을 때 국가가 불교를 공인하였다는 사실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불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기 전에 이미 이 땅에 불교가 들어와 있었음을 입증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순도스님이 덕망이 오매고 교화의 열의가 굳은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 역사기록으로 볼 때 순도스님과 같은 승려의 교화에 힘입어 민중들 사이에서는 불교가 이미 널리 퍼졌고, 비로소 국가가 공인하였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이 땅에 불교를 전하였던 고승이나 인물들은 순도스님이나 마라나타스님 이전에도 있었으나, 그들이 계속 불교를 호포하여 왕들로 하여금 불교를 공인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황인규/동국대 강사



태고학회 회원들이 5월28~30일 실시한 태고보우 국사 유적 답사에서 출가자인 양주 회암사터를 둘러보고 있다.

태고보우 국사 탄신 700주년 학술대회·문화행사 잇달아

“원융사상 진면목 알린다”

올해는 태고보우 국사 탄신 700주년을 맞는 해다. 조계종, 태고종 등 10여 개 종단에서 조종 및 중흥사로 받들고 있으면서도 태고보우 국사의 사상에 대한 학술적·역사적 조명은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태고보우 국사 탄신 700주년을 맞는 올해,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 각종 행사가 풍성하다. 태고보우 국사가 태어난 음력 9월 21을 전후해 탄신 다례제를 비롯 각종 학술대회, 학술기행, 지역 문화잔치 등이 열린다.

학술대회는 모두 네 차례가 계획되어 있다. 올 1월 출범한 한국불교 태고학회(회장 무공 스님)는 11월 3일 불교 방송 공개홀에서 국제 학술대회를 연다. 태고보우 국사의 원융불교가 한국 불교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에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학

태고학회·중흥사 등 국제학술대회 준비

조계종 종단차원 첫 다례제 11월 봉행

자도 참석해 그의 원융사상과 수행 교화법을 살펴본다.

태고보우 국사의 비와 석종형 부도가 남아있는 양평 사나사는 '태고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10월 중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태고보우 국사가 중흥사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학술대회를 연다. 태고보우 국사 관련 서적을 꾸준히 발행하고 있는 불교춘추사는 국사가 석옥천공 선사로부터 깨달음을 인가받은 중국 호주시 현지에서 '원대 불교와 한중 차문화의 교류사

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 예정이다.

조계종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다례제 도 열린다. 사나사는 국사가 태어난 11월 6일 조계종 총무원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다례제를 봉행할 예정이다. 양평군의 지원을 받아 고려시대 왕사·국사의 운행 행렬을 복원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잔치 법회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해 태고보우 국사 유적 답사를 다녀오는 등 조계종 사찰로는 유일하게 태고보우 국사 선양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주지 회암 스님은 "한국 불교사의 큰 스승인 만큼 스님의 발자취와 사

상을 통해 오늘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태고학회는 태고보우 국사의 자취를 직접 둘러보는 국내·외 학술기행도 마련하고 있다. 지난 5월 28~30일 태고사, 회암사, 사나사, 소철암지, 봉암사, 범주사, 보림사 등 국내 유적 답사를 가진 데 이어 9월에는 중국 하무산 천호암 등 국사의 중국 유적 당시 현장을 답사하는 2차 학술기행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1차 국내 학술기행에서는 태고보우 국사 관련 유적에 관한 오류를

바로 잡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태고학회 회장 무공 스님은 "문경 봉암사 조사단에 봉안돼 있는 국사의 영정이 '太古堂 普愚 應德 大和尚 影續(태고당 부우 허응대화상 영정)'으로 기록돼 있고, 석종형 부도 안내판에도 '太古普雨(태고보우, 1301~1382)의 부도'라고 잘못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허응(應應)'과 '부우(普雨)'는 조선 중기 때 활약하던 '허응당 부우(應應堂 普雨)'를 말한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pa.com

“종교계 사회적 실천 강화할 때”

종교사회복지연구회 '한국종교문화 비판' 세미나

“최근 들어 한국 종교문화의 전근대적 혹은 종교권력 등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무성하다. 종교인 집단의 사회적 실천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될 때다.”

한국 종교문화의 현 모습을 진단하고 새로운 종교문화 만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4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종교사회복지연구회(소장 이혜숙) 주최로 열린 '한국종교문화 비판과 대안'이 바로 그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종교적 본성'을 잊어버린 종교 문화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먼저 한국종교문화연구회 소장인 연구위원은 "거의 모든 한국의 종교에서는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남녀 불평등이 존재한다"며 "상명하복의 규율과 군사 독재적 권위를 휘두르며 신자들을 길들여야 하는 가부장적 종교문화가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불교, 그 전통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발표를 통해 진철승(불교문화연구소) 씨는 "한국불교

의 가장 중요한 전통을 거의 홀로 잃어지고 있는 조계종은 선종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씨는 "사판의 절대적 권세와 분규가 행해지는 종단이 선종인가" 묻고 "부처님 당시의 무소유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탁발정신을 회복하고 비구 승려들이 종단의 모든 운영권을 독점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의 근대화와 개신교'란 주제발표를 한 서울대 종교학과 이진구 교수는 "교회 위기의 진원지는 바로 기복신앙을 이용한

승리주의, 패권주의, 가부장주의의 절묘한 결합에 있다"며 "교회가 자발적 집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권력의 그물을 해제하는 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종교성 회복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를 들었다. 정무성 교수를 필두로 사회복지학과는 "기복신앙"이라는 우리 나라 종교문화의 행태가 사회복지에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밝히고 "소외계층에 대한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는 종교성 회복을 위한 적절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형진 기자



종교사회복지연구회 주최로 4일 열린 '한국종교문화 비판과 대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종교성 회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문화재청 조직 개편

2국 7과 → 3국 11과

사찰소장 비지정문화재를 비롯 해 문화재 도난·도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문화재 사법 전담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등 문화재청 조직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문화재청은 현행 2국 7과 체제를 3국 11과로 확대·개편하는 조직 개편안을 최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문화유산국 안에 포함된 기념물과가 분리돼 문화유산국과 기념물국으로 나뉘고, 문화유산국은 매장문화재국과 동산문화재국, 건조물국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현재 유형문화재과 동산국 소속인 문화재사법단속반도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문화재청의 이 같은 방안은 최근 매장문화재 보존의 필요성과 문화재 관리·보존에 따른 지적이 잇달아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재청 문화재기획국 김동영 사무관은 "각 영역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확대·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탄신

한국선학회 16일 월례발표

한국선학회는 16일 오후 1시30분부터 동국대학교 덕암세미나실에서 6월 월례 학술발표회를 연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우재선 교수가 '수행자의 현량에 대한 일고찰'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종철·조경철 김명태 교수가 '고려대장경 판각 장소 선원사의 위치 비정'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병관(동국대 박물관 황인규(동국대 강사) 씨가 나선다.

문화재 지표 조사 지침 마련

문화재청은 최근 '문화재 지표조사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문화재지표 조사에서 논란이 돼 왔던 건설공사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면적이 3만 평방미터 미만인 공사는 시·도지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가야산 심원사지 시굴조사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경북 성주군 가야산 심원사지에 대한 시굴조사 실시된다. 중앙승가대학교는 이번 시굴을 통해 금당터를 비롯한 사원의 규모와 가람배치 등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지표조사를 실시했던 대구대 박물관에 따르면 심원사지에는 현재 4개의 축대와 건물지 5개소, 1989년 복원된 삼층석탑 등이 남아있다.

ENGAGED BUDDHISM 참여불교 한국의 종교권력 현주소는 어디에... 1년 정기구독 25,000원. 창간기획 좌담 교단자정운동의 방향과 과제. 기획연재: 국가권력과 종교, 세계의 공동체를 찾아서. 논단: 재가종무원, 전문직인가 부목인가, 포교를 위한 인터넷 활용 방안. 특별기고: 동국대 불교학부 원로-종진 교수님께 드리는 고인, 불교회관 이렇게 짓자. 교계초점: 열광하는 말, 괴문서 현상. 순회재의 세상읽기: 남북화해시대 통일운동의 새로운 방향. 참여불교재가연대 Buddhist Solidarity for Reform. 연락처: 02-725-6231-2, 02-725-6233, buddha21@budgate.net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 2001년 5·6월호 불교와 문화 이제 인터넷에서도 '불교와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www.kbpf.org. 특집 - 인터넷 불교포교의 현재와 미래. 불교계 최초 인터넷 관리자 대상 '인터넷 관리와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부처님은 자녀교육을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직면한 교육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을 부처님께 물어보았다. 부처님이 아들 라울라를 가르치는 장면은 진정 감동적이다. 라울라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처님은 야단부터 치지 않으셨다. 부처님은 라울라에게 부처님의 말을 씻기도록 하셨다. 말을 씻기겠다는 것은 진한 사랑의 행위이다.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말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대한 양 부드럽고 정성스럽게 씻겨줄 때 발을 밟던 사람이나 씻어주는 사람이나 진실한 행복과 사랑을 체험한다. 어렸던 우선 사랑의 정을 아끼하신 부처님은, 구체적인 사물과 행동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 문답법을 통해 라울라의 잘못을 깨우쳐준다. 해외불교 대담 - 피터 센가와 마가렛 휘틀리 진정한 리더십과 불교적 수행.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불교 저널 '삼팔라 라' 2001년 1월호에 소개된 '함께 일하는 방식의 변화(Change: How We Work Together)'라는 제목으로 가진 철학박사 피터 센가와 교육학박사 마가렛 휘틀리의 대담 내용이다. 이 글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이 무엇이고 우리가 조직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들의 주장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禪定) 수행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잘 보여준다. 역권간 불교와문화 전화: (02) 719-2806, 팩스: (02) 719-5052 인터넷 홈페이지: www.kbpf.org ▶ 정가 7,000원, 1년 6호간 구독료 42,000원